

판소리 전통은 잇되... **色** 다르게 '소리치다'



창극 프로젝트 '소리치다' 단원 백희정·소충섭·박해라·이세현씨(왼쪽부터).

광주·전남은 판소리의 본향(本鄉)이다. 송순섭·성창순씨 등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고법 제외) 5명 모두가 광주·전남 출신이다. 최근 들어 이자람이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 작품이 원작인 판소리 '사천가'와 '역척가'를 공연하는 등 판소리도 다양한 옷을 입고 있다.

지역 문화계에서 끼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등장이 가장 아쉬운 분야가 국악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판소리 분야는 적막강산이었다. 판소리의 전통은 잇되,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색다르게 다가가는 젊은 소리꾼은 없을까.

지난 5월 Theater 연바람에서 '꼭두랑 꽃가마 여행'(이하 꽃가마 여행)을 공연한 창극 프로젝트 '소리치다'는 그런 점에서 반가운 행보였다.

국악 가족 뮤지컬 '꽃가마 여행'은 죽음을 앞둔 예술이 할머니와 그녀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은 꼭두를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쟁, 장고, 피리 연주에 이어 배우들이 등장했다. 흥겨운 장단에 맞춰 신명난 소리가 흘러나왔고, 익살스런 연기도 이어졌다. 또 인형극, 찻집 장면 등도 선보였다.

'소리치다'는 전남대 국악과 출신 젊은 소

젊은 소리꾼 모여 창극단 '소리치다' 결성

"추리극·민요·생활극 등 소재는 무궁무진"

가족 뮤지컬 '꼭두랑 꽃가마 여행' 무대 올려

리꾼들이 모인 창극 단체다. 지역에서 창극을 공연하는 단체는 광주시립국악단과 전남도립국악단 정도다. '소리치다'는 전통 예술인 판소리를 기반으로 민요, 정가, 연극, 뮤지컬, 영상, 무용 등 다양한 예술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창작하는 게 목표다. 판소리 맥을 잇되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과감하고 기발한 작품을 제작한다는 꿈도 갖고 있다.

타악그룹 얼썬 등에서 풍물 등을 배우우 2004년 뒤늦게 전대 국악과에 들어가 소리를 배웠던 대표 박해라(여·41)씨를 비롯해 역시 판소리를 전공한 소충섭(32), 이세현(27)씨, 가야금 전공으로 가야금 병창을 공부한 백희정(32), 박세영(34)씨 등이 주 멤버다. 여기에 유태선(29·대금), 김민지(32·가야금), 정인성(32·타악)씨가 합류했다.

"광주에 창극 단체가 거의 없어요.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했는데 주위에 소리하는 친구들이 모여더러구요. 판소리 전공자들이 딱히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아 관심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틀에 박힌 판소리 발표회 등을 벗어나 뭔가 새로운 게 필요했죠. 초창기에는 실은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박해라)

'소리치다'가 결성된 건 지난 2011년이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지난해부터다. 초창기에는 20분 분량의 '뽕파전', '춘향전' 등을 무대에 올렸다. 이번 작품은 놀이패 신명의 박강 의씨를 연출가로 초청,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좀 더 공을 들였다.

단원들은 국악 강사로 활동하며 일주일에 한 두번씩 농성동 연습실에 모인다. 함께 대본을 쓰고 음악을 맞추고 소리와 안무를 짤다. 소씨와 백씨는 정통 연기를 배우기 위해

푸른연극마을에서 활동하며 '사평역에서', '꽃같은 시절'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아직 아쉽기는 하지만 단계 잘 밟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악하는 친구들과 협업하는 방안도 구상중입니다. 앞으로 제작하고 싶은 작품은 많아요. 큰 규모가 아니라도 기존 창극과 '다르게' 창작될 수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박해라)

이세현씨는 민요 '한오백년'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다. 백씨는 일상에 좀 더 밀착된 '생활극'에, 박 대표는 안중근 의사의 관심이 있다.

"창극으로 만들 수 있는 소재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전남들이 안 하는 것, 추리극 같은 걸 시도해 보고 싶어요. TV에서 했던 별순검 시리즈 같은 스타일의 작품이죠."(소충섭)

'소리치다'는 오는 9월에는 아리랑축전에서 광산구와 함께 작업을 하며 푸른길 공연과 광주공연 등 야외무대에도 선다. 7~9월에는 한 작품씩 단막 창극도 올릴 계획이다.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해 주는 사람'이라는 '소리치다'(cafe.daum.net/sorchidada)의 행보가 기대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시장서 13~14일 지역문화포럼

지역별 문화정책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역문화포럼이 13~14일 광주 대인예술시장 상인교육장에서 열린다.

지역문화네트워크와 (사)문화도시네트워크, 대인예술시장 사업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포럼 주제는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지역문화정책-문화법안의 정책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다.

13일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종관 충북문화재단 이사, 민선 6기, 지역문화정책의 현황과 전망,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의 '문화기본법과 문화영향평가를 통해서

본 지역문화', 김기봉 성공회대 문화예술정책론 외래교수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지역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병수 사회적기업 이음 대표의 '전주 남부시장 사례를 통해 본 전통시장 활성화', 정민통 북구문화의 집관장의 '대인예술시장의 현황과 과제', 김백기 한국실용예술제 총감독의 '시장과 예술의 만남 그리고 가야할 길' 등 발제와 토론이 준비돼 있다. 문의 062-233-142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의 애창 가곡은

광주·전남 우리가곡 부르기 내일 호신대 티브라운서

학창 시절 음악시간에 배웠던 가곡은 항상 흥얼거리게 된다.

한달에 한번 모여 우리 가곡을 함께 부르는 광주·전남 우리가곡 부르기(회장 황선옥) 6월 행사가 13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티브라운에서 열린다.

'나의 애창 가곡'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회원 12명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곡을 부르는 시간을 마련한다.

고재경씨는 '그대 어디쯤 오고 있을까', 이용조씨는 '그리움', 서해란씨는 '풀잎이 한 말', 장홍식씨는 '내 밥의 갈뭍', 나인희의 '초

혼' 등을 부른다.

특히 김진씨는 자신의 시에 오연영이 곡을 부친 '그대를 위하여', 남미영씨 역시 자신의 시에 김경양이 곡을 부친 '능소화 연정'을 직접 부른다.

특별 출연으로 전대사대부중 합창단원 20명이 하은주 음악교사의 지도로 '청산에 살리라' 등을 들려주며 '더 싱어즈'(회장 이한나)가 '고향의 봄'과 '도라지꽃'을 연주한다.

회비 1만원을 내면 간단한 먹을거리와 차를 즐길 수 있다.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

문화예술로

풍성한 잔치에

지금 초대합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 14일부터 5주년 기념행사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설립 5주년을 맞아 '문화예술로 풍성한 잔치에 지금 초대합니다. 문·풍·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14~15일 오후 3시부터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리는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 한마당'에서는 극단 갯돌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전남도립국악단이 이끄는 '국악 플래시몹', 극단 새결의 세월호 참사 추모공연 등이 이어진다.

14일 오후 7시부터는 아마추어 예술가 및 전문 예술단체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펼치는 '뽕뽕(Fun Fun)한 프린지'가 열리며, 15일 오후 7시부터는 해변 영화극장에서 추억의 영화 '리브스 토리'가 상영된다.

16일 오후 6시30분에는 여수문화예술회관에서 솔리스트 A의 도민 문화강좌 '클래식 해설음악'이 열리며, 17일 오후 4시에는 전남도립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발전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한다.

이어 18일 오후 3시30분 목포 항도초등학교 대강당에서 '국악반주교과 제작사업 발표회'가, 19~26일까지 전남도립도서관 1층 미술전시실에서 '중국 서안 비림박물관 서예 교류전'이 진행된다.

26~27일에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일환으로 우수사례 견학 '문화 실크로드'가 경기·충청·경상도 일대에서 추진된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주요 행사

날짜	내용
14일	뽕뽕(Fun Fun)한 프린지 공연 극단 갯돌 개막공연
14~15일	도립국악단 '국악 플래시몹' 극단 새결 세월호 참사 추모공연
15일	해변 영화극장 '리브스 토리' 상영
16일	'클래식 해설음악' 강좌
17일	전문가 네트워크 포럼
18일	국악반주교과 제작사업 발표회
19~26일	중국 서안 비림박물관 서예 교류전
26~27일	우수사례 견학 '문화 실크로드'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설립 5주년을 맞아 14일부터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도립국악단 공연 모습.

since 1982

창업 32주년 **K** 국제보청기

www.kjhr.com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어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 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